

장성군 “주정차 흠잡제 거리에는 물건 쌓아놓지 마세요”

노상적차물 이동 계도 및 홍보 활동 실시

장성군이 최근 장성읍 애플탑~삼지공원 1.6km 구간 중앙로에서 주변 상가 등을 대상으로 인도 위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였다.

장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계도는 주정차 흠잡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추진됐다.

장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날짜별로 도로 한쪽 구간에 주정차를 허

용하는 ‘주정차 흠잡제’를 시행해 주정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주정차 흠잡제 구간 곳곳에는 LED 안내등이 설치돼 있어 운전자들이 주정차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나 도로변에 각종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원활한 주정차 흠잡제 운영이 어렵다. 특히, 적지 물을 피해 무리해서 주차하려다 보

행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흠잡제를 운영 중인 거리뿐만 아니라 인도나 도로변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입간판이나 택배 물품, 자전거 등을 세워두면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계도를 통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장성읍 중앙로에 이어 지난 2021년부터 황룡시장 뱃나드

리로 일부 구간(현대때방앗간~황룡마트)에서도 주정차 흠잡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5대 불법주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불법주차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광중 기자

화순군, 개미산 일대 문화관광벨트 조성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화순읍 개미산 일대에 새로운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한다.

군은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하나로 개미산 일대에 문화·관광·여가 벨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미산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 ▲자연환경과 주변 자원을 살린 공간 ▲화순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스토리가 있는 공간 ▲화순을 찾는 관광객에게 매력을 주는 공간 ▲지역 일자리 창출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개미산 전망대는 화순을 상징할 수 있는 지상 3층 규모로 설치한다.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화순의 역사·문화·관광 등 전시 공간, 3층은 화순 주변 경관을 한눈에 조망하는 공간을 조성해 화순 대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는 100개의 계단을 설치해 건강과 재미를 추구하도록 이색 건강 데크 계단

(480m)를 만들고, 전망대 방문객들의 사진 촬영을 위한 상징 조형물도 설치한다.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경관조명, 보행 약자를 위한 개미산 들레길, 차량을 이용해 전망대를 찾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600㎡)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인접하고 있는 화순천에 조성할 화순천 꽃강길 생태공원의 음분수대, 인도교, 들국화정원, 생태학습장, 나드리목 캠퍼스 등 생태문화공간과 안양공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나드리노인복지관 등 문화복지 공간과 연계해 화순의 복합 문화관광벨트가 만들어진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의 힐링 공간 역할을 넘어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로 화순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호경 기자

영광, 폭염대비 살수차 운영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폭염 특보 발효에 따라 군민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특보 최초발효일자가 12일 빨라지는 등 이른 폭염이 찾아와 당분간 매우 무덥고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도로 살수 작업을 통해 도로 가열을 해소해 주변 체감 온도를 낮추고, 도로 미세먼지 제거 및 도로노면 청소효과를 통해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살수차 운영은 폭염특보(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발효 시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하며, 영광읍 등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군민께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인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외작업 등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그늘 및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자주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념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선제적 폭염대응을 위해 6월에 취약계층에 폭염대응물품(쿨방석)을 배부했고 폭염저감시설(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설치했다.

/이경률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영주 담양부군수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우리군 역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비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 중앙부처 방문해 국고 예산 확보 ‘총력’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영주 담양부군수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우리군 역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비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중점 건의한 사업으로는 ▲정원 일자리산업 육성을 위한 국립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공사비(60억원 추가 반영), ▲간선도로망 확충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고서·장평 국지도 60호선 확장사업 기본설 시설계비(10억 원) 등 자립형 경제도시 육성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최영주 부군수는 “앞으로 적극적인 국고 예산 확보 노력으로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담양을 만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관련부처 및 국회 방문 등 전라남도와의 공동대응을 통해 미반영된 국가 사업 예산 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해 재편성한 정부 예산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된다. /장진성 기자

나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 당부

30초 이상 손 씻기·음식 익혀먹기 등 수칙 안내

나주시 보건소는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시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를 통해 감염되며 환자·보급자가 조리한 음식에서도 전파될 수 있다. 감염 시 주로 설사, 복통, 구토 등 위장관 증상이 발생한다.

2급 및 3급 법정 감염병은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비브리오패혈증 등 8종, 4급 법정 감염병으로는 살모넬라감염증,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등 20종이 있다.

특히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세균증식이 활발해지고 감염

병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시청·보건소 누리집과 SNS를 통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습식 충분히 익혀먹기 스팀 끓여 마시기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하지 않기 △생선·육류·채소 도마 분리 사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서현승 보건소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 취사 행위에서의 위생 부주의로 감염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흐르는 물에 자주 손을 씻고, 음식은 익혀먹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철 기자

무안군

청정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향! 무안을 말하다...